

세원셀론텍,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승인

세원셀론텍(회장 장정호)은 성체줄기세포를 뼈세포로 분화시킨 <오스텝>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12월19일 발표했다.

오스텝은 환자의 골수에서 분리한 성체줄기세포를 특정 뼈세포로 대량 분화시킨 제품으로 뼈 결손 부위에 주입하면 뼈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.

세원셀론텍은 전 임상과정을 통해 오스텝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으며 골절환자 74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.

세원셀론텍은 오스텝의 상용화를 위해 2002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전상담과 검증과정을 거쳤다.

<화학저널 2005/12/21>